

[10차시] 한자성어



1. 풍비박산

風: 바람 풍

飛: 날 비

雹: 누리 박

散: 흩을 산

풍비박산(風飛雹散)은 사방으로 날아 흩어짐을 뜻합니다. “사업의 실패로 풍비박산이 된 집안을 수습했다” “풍비박산했던 가족이 다시 만났다” 등처럼 사용됩니다. ‘풍지박산’으로 쓰기 십상이니 주의해야 합니다.

2. 절체절명

絕: 끊을 절

體: 몸 체

絕: 끊을 절

命: 목숨 명

‘절체절명(絕體絕命)’은 몸도 목숨도 다 되었다는 뜻으로, 어찌할 수 없는 궁박한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절체절명의 순간’ 등처럼 사용됩니다. “대체 에너지 개발은 절대절명의 숙제다” 등과 같이 ‘절대절명’이라 쓰기 쉬우나 ‘절체절명’이 정확한 말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3. 혈혈단신

子: 외로울 혈

子: 외로울 혈

單: 홀 단

身: 몸 신

[10차시] 한자성어



혈혈단신(孑孓單身)은 의지할 곳이 없는 외로운 홀몸을 뜻합니다. “부모를 여의고 혈혈단신으로 살아 왔다” “혈혈단신으로 세계 오지를 누비고 다녔다” 등처럼 쓰입니다. “홀홀단신으로 살아온 지가 30년이다” “홀홀단신으로 서울에 올라왔다” 등과 같이 ‘홀홀단신’으로 잘못 알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4. 일사불란

一: 한 일

絲: 실 사

不: 아닐 불

亂: 어지러울 란

일사불란(一絲不亂)은 한 올의 실도 엉키지 아니함이란 뜻으로, 질서가 정연해 조금도 흐트러지지 아니함을 이르는 말입니다. “일사불란한 움직임이었다” “명령에 일사불란하게 따라야 한다” 등처럼 사용됩니다. “일사불란하게 복종했다” “일사불란한 지휘체계가 생명이 다” 등과 같이 ‘일사불란’으로 잘못 쓰이는 경우가 많으나 ‘일사불란’이 정확한 어휘입니다.

5. 야반도주

夜: 밤 야

半: 반 반

逃: 달아날 도

走: 달릴 주

야반도주(夜半逃走)는 남의 눈을 피해 한밤중에 도망함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는 성실한 소작농이었지만 빚을 갚지 못해 야반도주했다” “중국에서 야반도주하는 한국 기업이 늘고 있다” 등처럼 사용됩니다. ‘야간도주’도 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카드 빚으로 야밤도주했다” “여자친구랑 야밤도주했다” 등과 같이 ‘야밤도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으나 ‘야반도주’가 바른말입니다.



6. 포복절도

抱: 안을 포

腹: 배 복

絶: 끊을 절

倒: 넘어질 도

포복절도(抱腹絶倒)는 배를 끌어안고 넘어질 정도로 몹시 웃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포복절도하도록 웃었다” “포복절도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등처럼 사용됩니다. “얼마나 웃기는지 포복졸도했다” “포복졸도할 지경이었다” 등과 같이 ‘포복졸도’로 쓰기 쉬우니 주의해야 합니다. ‘포복절도’와 같은 뜻으로는 ‘봉복절도(捧腹絶倒)’가 있습니다.